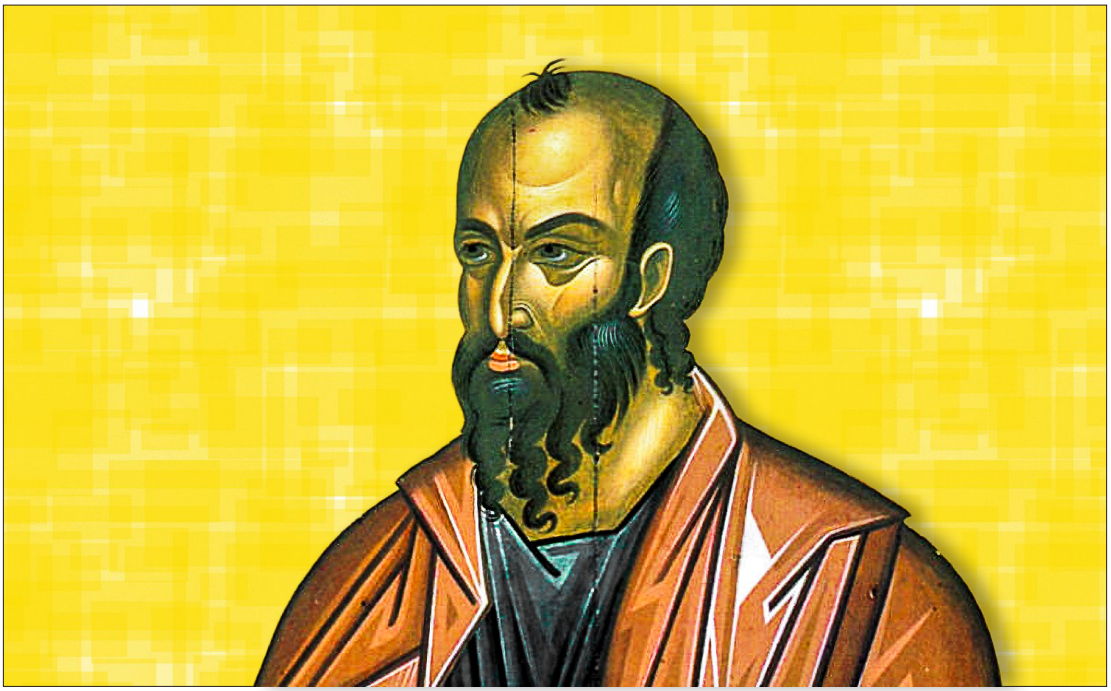
정교회주보

제2603호
2026년 11월 15일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나는 카이사르에게 상소합니다"(사도행전 25,11) - 권세 앞에서도 복음을 굳게 고백한 성 사도 바울로

루가 제8주일
(성탄 대림절 시작)
성 사모나 순교자
(제7조 • 조과 복음 2)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7조 부활 찬양송 …… 82
- 순교자 찬양송 …… 84
- 성당 찬양송
- 성모 입당 축일 시기송 …… 204
- 사도경 : 에페소2,14~22 ·(봉)318
- 복음경 : 루가 10,25~37 …… 128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생각을 다하여 주님이신 네 하느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루가 10,27)

[45회] "나는 카이사르에게 상소합니다"

새총독 페스도가 유다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바울로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려 하자, 바울로는 "나는 카이사르에게 상소합니다"(사도행전 25,11)라고 선언했다. 이는 자기를 암살하려던 예루살렘의 음모로부터 목숨을 지키는 법적 권리 행사이자, 제국의 심장부 로마로 향하는 선교의 길을 연 결정적 순간이었다.

인간의 눈에는 재판의 연장이었지만, 영적으로는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던 주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하느님의 신비로운 섭리였다. 바울로는 세상 위협 앞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자신의 앞날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겼다.

오늘날 우리도 삶의 역경과 불의 앞에서 낙심할 때가 많다. 하지만 막다른 길에서도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길을 예비하신다. 우리를 이끄시는 선하신 섭리를 신뢰하며, 신앙을 굳게 지키고 용기 있게 걸어가야 하겠다.

금식의 필요성

한의종 알렉산드로스 신부



정교회는 큰 축일을 맞이하면 금식 기간을 정하고 금식하도록 인도합니다. 평일에도 수요일과 금요일, 그리고 성체성혈을 받기 전에 금식하여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주님의 거룩한 몸과 피를 우리 안에 받아 모십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거룩한 성체와 성혈을 직접 모시는 것이 정교회 영성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금식은 정교회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약성서에서 하느님과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와 그 밖의 사건들을 보면, 거룩한 일을 행하기에 앞서 금식하며 문제에 직면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에도 금식은 계속해서 지켜져 왔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물론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또한 사도 시대와 그 이후 교부들을 거쳐 오늘날까지도 그 거룩한 전통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금식이 영적 생활을 하고 영적 투쟁을 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 금식을 단지 형식적인 것으로 여겨 그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주일에 성체성혈을 받기 전에도 어른들은 아침부터 담배를 피우고, 아이들은 과자, 우유, 사탕 등을 먹고 마시며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지 않은 채 성찬식의 거룩한 성체와 성혈을 욕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교회의 금식은 음식을 아예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먹되 가려 먹어라'는 것인데, 사실 이것이 더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영적 투쟁을 해야 합니다. 차라리 하루 이틀 아무것도 먹지 않고 빨리 끝내면 좋겠지만, 40일 동안 '먹되 가려 먹어라'고 하니 고깃집 앞을 지나갈 때나 초대받았을 때도 곤란한 경우가 많고, 그 유혹을 떨쳐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금식을 단지 음식만 절제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천해야 할 영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단절하고 지낼 수는 없습니다. '세상과 관계를 맺으면서도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일만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분들은 아직도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식을 단지 형식으로만 여긴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도 형식에 불과할 뿐입니다. 형식도 주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필요하며, 더욱 잘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거룩한 것을 추구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주님의 탄생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금식하며 축복받도록 노력합시다.

교부들의 가르침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대 바실리오스 성인의 말씀

당신은 창녀가 성인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간통과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 온화하고 유순한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구두쇠와 수전노(守錢奴)가 자신의 모든 소유를 자선금으로 내놓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살인자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수도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방랑자나 떠돌이가 해처럼 빛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거짓말쟁이, 도둑, 강도가 성인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온갖 혐오스럽고 가증스러운 일을 저지른 남녀가 자신의 삶을 바꾸어 거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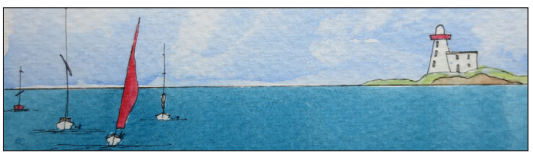
하지만 오직 한 가지, 당신이 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쉽게 볼 수 없는 것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자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신과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파괴하려 할 것입니다.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주의는 죽마(竹馬: 다리를 올려놓고 키가 커 보이게 하는 나무 장대)와 같아서, 사람의 키를 커 보이게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기도의 긍정적인 결과

성령으로 가득 찬 열두 명의 사도들이 온 세상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변화시켰음을 잊지 맙시다.

오늘날 수많은 신자들과 수도자들, 성직자들, 주교들이 있지만, 한 사람을 하느님께로 데리고 오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다가가기 때문입니다. 논쟁을 통해 누군가에게 우리의 신앙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말과 논리적인 증거, 모순들, 수많은 지어낸 이야기로 상대를 납득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기도로써 상대가 믿게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영적인 질병이 있기 때문인데, 그것은 바로 절반만 믿는 병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라고 굳게 믿지 못합니다. 만일 하느님께서 행하시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일 하느님께서 행동하신다면, 모든 인간적인 것들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가장 위대한 행동, 가장 위대한 에너지, 가장 위대한 행위가 바로 기도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학자 그레고리오스 성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가장 위대한 행위, 가장 위대한 행동은 기도에 참여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따라서 이제 그저 행동하는 데에만 열중하는 일을 멈춥시다. 그러면 기도가 얼마나 크고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주간 예배 안내

* 11월 16일(월)
  성 마태오 복음사도
* 11월 21일(토)
  성모 입당 축일
  오전 9시 : 조과 및 성찬예배
(각 성당 예배는 문의 바랍니다.)

▦ 양구 성당 철야예배

성 안드레아 첫 사도 축일 기념 철야예배가 11월 27일(금) 밤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차량, 숙소, 식사 준비를 위해 서울 성당 사무실로 22일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 성당 바자회 개최

부산 성모희보 성당에서는 지난 주일(8일)에 어려운 이웃 돕기 바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매년 11월 정기적으로 열리는 이 행사를 통해 모금된 기금은 모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입니다. 다양한 음식과 물건을 판매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친교를 나누며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이어온 사랑의 실천에 대한 보답으로 부산사회복지회로부터 감사패도 받게 되었습니다. 매번 바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여성회, 장년회, 청년회 회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축복과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소 식

▦ 성탄 대림절 금식 시작

오늘(11월 15일)부터 성탄절을 준비하는 '성탄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이 기간엔 아래와 같이 금식을 지킵니다. 몸과 마음을 잘 준비하며, 세상 구원을 위해 오시는 구세주 우리 주님의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합시다.

11월 15일-12월 17일 : 생선류는 허용되며 육류는 금합니다. (수, 금요일엔 육류는 물론 생선류도 금합니다.)

12월 18일-12월 24일 : 엄격한 금식으로 육류와 생선류 모두 금합니다.

▦ 마다가스카르의 이그나티오스 대주교 방한

마다가스카르의 이그나티오스 대주교께서 약 열흘 간의 일정으로 방한하셨습니다. 지난 주일(8일)에는 인천 성 바울로 성당에서 성찬예배를 집전하셨고, 주중에는 울산 성당과 부산 성당을 방문하셨습니다. 또한 한국 신자들에게 마다가스카르 지역의 선교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대주교께서는 1984년부터 1990년까지 한국에 머무시며 소티리오스 대주교와 함께 한국 선교를 위해 봉직하신 바 있습니다. 당시 서울, 인천, 양구 성당 및 가평 수도원 등에서 다양한 선교 활동에 기여하셨습니다. 한국과 한국 사람들을 깊이 사랑하셨으며, 늘 신자들을 만나고 싶어 하셨습니다.

우리 대교구에서는 마다가스카르 선교 사업을 위해 헌금을 모아 대주교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 서울 성당 유아 세례 성사

지난 토요일(7일), 성 막심 성당에서 로만 대신부의 집전으로 이 솔로미야 유아의 세례성사가 거행되었습니다. 축하드리며, 주님의 축복으로 건강하고 거룩하게 자라나길 기원합니다.

▦ 서울 성당 연세대 학생들 방문

지난 토요일(7일), 연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김혜영 교수와 학생 30여 명이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을 방문하여 임종훈 안토니오스 신부로부터 정교회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